고은 불교대하소설

그들의 밤과 낮

만화의 영식(靈識)은 허공계의 혹독한 추위때문에 아주 단단한 얼음조각처럼 되어 있었으나 그 영식이 지상을 향해서 떨어지는 속도 때문에 그 얼음이 녹아 버리는 뜨거움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천축의 북쪽 하늘을 물타리치고 있는 설산(雪山)에 사는 새 한고조(寒苦鳥)의 신세와는 다른 상태였다.

한고조 암컷이 밤새도록 "아이고 추워 나 죽어, 아이고 추워 나 죽어"를 되풀이하며 울 때마다 수컷은 "날이 새면 따뜻한 집을 지어줄게"하고 달래는 것이다.

하지만 날이 새면 "아침 해가 따뜻하게 비추어 주니 집이 없어도 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또한 수컷이 장담하기를 "굳이 집을 지어 무엇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덧없는 세상인데"라고까지 내뱉는 것이었다.

그래서 밤마다 암컷은 설산의 칼칼한 추위 속에서 떠는 일을 언제까지나 되풀이하는 괴로움으로 살아갔던 것이다.

만화는 그런 설산 한고조가 사는 곳에서 훨씬 북쪽 오지의 사막에 떨어짐으로써 먼저 거기에 내려온 합두로부터 몇백리 상거의 사구(砂丘)에 떨어졌다. 밤이었다. 무엇인가가 소문없이 떨어지기 좋은 밤이었다.

하늘! 그가 떠나온 하늘에는 어디에 도솔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고 따위와 상관없이 그 검푸르게 깊은 밤의 허공 가운데 멀고 가까운 별들의 보석을 박아 논 시리도록 빛나고 있었다.

만화는 그 지상의 첫날밤을 감격으로 벅찬 나머지 잠든 넋이 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도 없는 상태의 그 사막이야말로 오직 하늘의 별빛만으로도 충분히 주위를 식별할 수 있었다.

그뿐아니라 사막은 그 풍부한 하늘의 별빛을 조금도 반사시켜서 밝게 해주지 않고 그 빛들을 온전히 흡수해 버리고 있었다.

만약 별빛을 조금이라도 반사시킨다면 훨씬 밝은 곳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반사의 빛이 아니더라도 밤의 사막은 전혀 빛의 빈곤을 누리지 않았다.

차라리 대낮의 태양이나 보름밤의 달은 빛을 받는 쪽과 받지 않는 그늘을 구별하지만 별빛은 어떤 부분에도 스며들어 가거나 굽이쳐 가서 실로 자상하게 빛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이윽고 그런 밤이 지나간 뒤 동쪽 모래언덕의 지평선 언저리가 붉은 기운을 물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어둠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어디선가 탕!하는 버락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어둠과 붉은 기운이 뒤섞인 데서 먼동이 트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아!"

이제 시뻘건 빛깔이 지평선 위의 하늘과 그 아래를 함께 채웠다. 하지만 한 마리 새도 없는 사막지대의 공간을 오직 그런 빛의 장치로만 감당하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해가 불끈 솟아 올랐다. 그것은 동시에 땅이 기우뚱하고 동쪽 방향으로 굴러가기 때문인지 몰랐다. 그래서 해와 땅이 오랜 약속에 의해서 밤으로부터 낮의 시간이 이루어진 것인가.

만화는 그 자신이 사막의 모래에 반쯤 묻혀있는, 너무 오래되어 바스라질 것 같은 해골의 뼈에 그 생명이 늘어붙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 뼈가 어느 때의 것이며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은 어떤 엽기적인 고고학자의 관심 밖고는 매우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곳은 이제 인간의 생활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그런 곳이었다. 사방을 돌아다 보아도 어떤 인간적인 희망이 나타날 리 없다.

바로 그런 사막의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에 아주 먼 과거의 어느 시기에는 동방과 서방을 연결시키는 국제도시가 세워졌고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나 드나드는 사람으로 성황을 이루었다면 그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런 사막이 먼 과거의 유적지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의 해골과 유골 몇마디로 모래에 잠겨있다가 슬며시 그 일부를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데에서 만화의 새로운 일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는 한나절이 되어서 그 해골에는 조금씩 영문모를 인간의 얼굴형상이 생겨나고 그것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뼈마디가 슬슬 지남철(指南鐵)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서로 맞추어지며 거기에 육신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어디선가 사자의 울부짖는 것 같은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해골과 유골은 마침내 한 사람의 생명체로 일어서게 되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바람 때문에 모래가 날리기 시작하였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 모래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이 바로 만화였다.

그런데 이 때를 맞춰 거의 동시에 몇백리 떨어져있는 페허의 불탑 아래의 돌덩어리도 그것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느 기록에 '완석이 움직인다(頑石動也)'라는 말이 있거니와 한번 내던져진 한 덩어리 돌이 마치 수레바퀴라도 달린 것처럼 저만치 굴러가다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 기이한 광경을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곳이었다. 오로지 수없는 모래알 하나하나의 묵언(默言)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돌덩어리가 마치 커다란 나무알때라도 되는 것처럼 한 가운데가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었다.

옛날옛적의 난생설화가 없는 것은 아니거니와 그렇다면 돌덩어리가 알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어쨌거나 그 돌덩어리가 갈라진 뒤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나왔으니 이 광경 역시 한번 더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사람은 여자였다. 다시 태어난 합두였던 것이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어딘가 간난아기의 울음소리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아주 천진난만한 본능의 첫걸음이기도 하였다.

만화는 해골에서 재생되고 돌 속을 가르고 나온 합두는

태어나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다 만화의 귀에 먼 울음 소리가…

그 울음소리가 무표정하게 솟아있는 누란의 불탑 언저리의 그곳에서 몇백리 밖의 타크라마칸사막에 있는 만화의 귀에 들린 것은 이적(異蹟)이기도 하였다.

만화는 그의 귀에 들리는 먼 울음소리가 마치 꿈 속이거나 아니면 환각 속의 그것으로 느껴졌지만 다시 귀를 기다려 먼 곳의 소리를 흡인하는 힘을 발휘한 뒤 그 울음소리는 현실의 울음소리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남쪽의 곤륜산맥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여러 강물이 끝내는 타림분지(盆地)의 어디에선가 사막에 빨려들어가고 마는 곳에 한 걸음 한 걸음 해골에서 재생한 만화가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걸음으로 언제 몇백리 저편의 누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는 쌍봉(雙峰)낙타 한마리도 없거니와 나귀도 있을 리 없다.

먼 옛날 현장(玄奘) 일행이 행운과 비운의 교차로 진행된 이 일대를 통과하는 천축에의 여행과는 달리 아무런 규모가 없는 단 한 사람의 걸음일 따름이었다.

사막의 대낮은 이마의 살갗이 벗겨질 만큼 뜨거웠다. 모래바닥에 멋모르고 맨발바닥을 놓았다가 발바닥을 상하였다.

"이렇게 가다가는… 하루에 5리도 나아갈 수 없겠어. 나는 사막의 해골일 따름인가."

이런 절망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한 가닥 선풍(旋風)이 불어대더니 그 바람자락 끝에 이제까지 보지 못한 커다란 새 한마리가 사막 위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그 새가 내려앉을 때의 사막 모랫바람 때문에 만화는 눈을 감고 있어야 하였다.

그것은 마치 헤시오도스의 '신통기(神統記)'에 나오는 날개 달린 신 히르피아와도 같았다. 긴 머리칼을 풀어헤치고 바람과 여느 새들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그 새 말이다. 아니면 고대 이집트의 불사조 피닉스라도 닮은 것일까.

이런 새보다 일찍 나타났다 사라진 황하와 양자강 위의 높은 하늘을 9만리나 날아가는 대붕(大鵬)의 후예인지도 모르거니와 만화 앞에 성큼 내려앉은 한쪽 날개가 다섯길이나 되는 큰새는 모래알을 몇번 쪼아보다가 만화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어서 타시구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만화도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래 그대 신세를 한번 질만하구려"라는 뇌파(腦波)의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그런 다음 만화는 마치 그가 천상계에서 천의(天衣)를 날개 삼아 휘날리며 날아다니던 시절을 문득 기억해내면서 새의 등에 올라탔다.

새는 별로 힘을 주지 않으면서 쉽사리 두 다리를 세워 일어났다. 그러자마자 모랫바람을 일으키며 우렁차게 수직의 공중으로 상승하였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타림분지 일대의 그 황량한 사막 전체를 내려다 보는 동안 남쪽의 곤륜산맥과 북쪽의 천산산맥의 그 웅장한 산줄기의 만년설까지 볼 수 있는 커다란 우주적 시야(視野)가 저 아래로 펼쳐지는 것이었다.

새는 거의 동북쪽으로 그 새가 좀더 속력을 더 낼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날개를 절도있게 퍼덕이는 것이었다.

구름을 따라 근심은 끊어지고
강물을 따라 그리움은 흘러간다.

(雲隨愁斷
川隨思離長)

이 작자를 알 길 없는 시는 중국문학의 지도 밖에서 존속해온 돈황문학(敦煌文學)의 한 구절이지만 새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만화의 마음 속에서 절로 흘러나오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움이라니! 그렇다면 그가 가는 길이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란 말인가. 그가 들은 바 청아한 울음소리의 먼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는 판인데 다만 새가 날아가는데에 그 자신의 운명을 내맡긴채인데.

과연 새는 그날 저녁무렵의 왕성한 낙조의 천연색으로서의 시뻘건 하늘 속에서 새의 몸뚱어리와 날개까지도 온통 시뻘건 빛깔로 물들고 있었다.

어쩌 만화인들 시뻘건 빛깔의 사람으로 되지 않을쏜가. 그동안 만화는 태어나서 하늘 속을 날아오는 동안을 세월로 삼아 아주 헌걸찬 젊은 사나이로 되고 있었다.

"내려갑시다. 이제"라고 새가 한번 날개를 휘저었다.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지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 (02)737-0697

최신 · 독창을 갖추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본 원만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 지니는 잠재력 속에 근접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실현 우리가 된다.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수련장 시흥시 월곶면 하중리 홍실선원

안내 ☎ (0893) 34-1115-6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 비만 관리 시술법
: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합구청역 543-7306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폐자재 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404-9521
팩스 (02)266-2679

-개성과 가치 전리함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가구-

붙박이장 오크원목 -장미상감부나 하이그로시

붙박이장은 :
첫째, 천정과 벽과의 틈새가 없어 기존 벽장과 (3배가 더 크고)
둘째, 내부 구조는 칸칸이 · 선반이 · 서랍 · 옷걸이 · 기타 등 등 모든 것을 한 개의 제작에
셋째, 다양한 색상 · 우아한 디자인 · 개조품 · 실내공간의 연출
넷째, 이사해 AS등에서 (문제 · 고장) 출두 · 도맡아서

주문제작품목
공장장부터, 출퇴근복, 수납장, 조리대 등 모든 주문가구

대웅비
연락 (02) 935-4013
팩스번호 (02)-236-3348

찾 · 습 · 니 · 다

전통불화 배우실 분

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이어 기도 · 정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대 佛事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자 불광미술원이 새 가족을 찾습니다.

■ 성별 : 남
■ 연령 : 만 18세~25세(군필 또는 면제자)
■ 학력 : 제한 없음
■ 기타 : 신심 돈독한 불자
■ 문의 : (02) 477-9178

* * * * * *

불광불교미술원

수원 도심 속에 포교를 원하시는 분을 찾습니다

불심으로 부처님을 모셔온 보살이오나 개인 사정상 운영하실 분을 원합니다.

■ 대지 : 71평 / 1층 요사채 / 2층 법당 (상담 후 가격 협상)

전화 0331-252-5659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신설 포교당 주석(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불은의 도시 대구에 부처님의 집이 비어있습니다. ○○스님께서 발심하여 포교당 불사를 완료하였으나 급히 스리랑카에 유학하실 기회가 생겨서 출국하시고 없는 관계로 주석(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 주소 ■
대구 직할시 달서구 상인동 1443-1 (주변 아파트 일괄매입, 보증금 有)

■ 전화 ■
053-638-0067
053-556-8429 (1 ~ 4시까지)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지리산(대원사) 대웅전 주지단 닫집 문짝
• 서울(백제사) 법당 주지단 · 용의 목탁함
• 충남(장보사) 대웅전 문짝
• 포천(법장사) 대웅전 · 주지단 법상 경대
• 가산(보광사) 대웅전 주지단 용의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 탁자
• 산청(법륜사) 대웅전 문짝 · 탁자
• 충주(광덕사) 대웅전 주지단 법상 경대
• 가산(보광사) 대웅전 주지단 용의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 탁자
• 산청(법륜사) 대웅전 문짝 · 탁자
• 서울(백제사) 화엄 · 불식 · 그림 · 다수 지분

대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지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禮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졸업과정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업계 명의의 허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 : 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 · 高과정(24개월) 박은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삼수(39세, 직장인) : 中 · 高 · 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 (영 · 수) 「비디오강의교사」 특별제공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 (비밀보장 PM 9 : 00)
기초 (영어, 수학) 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제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시험에 나타나는 주고주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그해 9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제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최경림(남, 27세) 드림 —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 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혜운빌딩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